

김승연 “우주시대 앞당겨 미래세대 희망 될 것”

〈한화그룹 회장〉

한화에어로 대전 R&D 캠퍼스 방문 차세대 발사체 단독협상자 선정 축하 참여 연구원들에 격려·편지 등 보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3월 29일 우주 사업의 ‘심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를 방문해 사업 현황 등을 꼼꼼히 챙겼다.

김 회장의 이번 방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차세대 발사체 사업 단독협상자 선정을 축하하고 연구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는 발사체 전 분야의 개발 수행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발사체 개발센터다. 이날 자리에는 한화그룹의 우주 사업 통합 브랜드스페이스 허브를 총괄하는 김동관 부회장도 함께 했다.

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누리호 고도화 및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주역인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회장은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보유한 7번째 국가가 되었다”며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또 차세대 발사체 사업 단독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3월 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 직원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그룹

협상자 선정을 축하하면서 이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 우주시대를 앞당겨 미래 세대의 희망이 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회사는 전했다.

임새빈 선임연구원은 “누리호 발사마다 회장님께서 주신 격려 편지를 간직하고 있다. 한화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1차 발사 당시 격려 편지를 가져와 김 회장의 친필 서명을 받

기도 했다.

김 회장은 누리호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격려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원 대부분이 그 대상으로 김 회장에게 셀카 촬영을 요청하며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하게 될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2025년으로 예정된 4차 발사의 완벽한 성공으로 우주 전문 기업으로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자는

것이다.

한화그룹은 우주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누적 약 9000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집행해왔다.

특히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자체 기술 확보와 독자적 밸류체인 구축에 힘을 쏟아왔다. 그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를 통한 우주수송을, 세트랙아이와 한화시스템은 인공위성 제작 및 위성 서비스를 담당하는 등 우주 사업 밸류체인을 확보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월 순천 울촌 산단 내에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착공식을 갖고 현재 한창 건설이 진행중이기도 하다. 센터가 완공되면 민간 체계종합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중대형 발사체 전문 기업으로서 독보적 역량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국가 우주 사업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현대글로벌비스 ‘카타르 LNG’ 수주 신규 성장동력 확보

현대글로벌비스가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기업 카타르에너지로부터 LNG 해상운송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카타르 국영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LNG 해상운송’ 입찰에서 총 4척의 LNG 해상운송 계약을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일본 선사 K라인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각 선박은 17만4000㎥ 규모로, 현대글로벌비스와 K라인은 2027년부터 해당 선박들을 공동 운용한다.

카타르에너지는 세계 최대 LNG 기업이다. 현재 연간 7700만톤인 LNG 생산량을 2030년 1억4200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LNG 운송 시장에서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자동차 운반 중심의 해운에 이어, 최근 LPG와 암모니아 해상운송에도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LNG 해상운송까지 더해 가스 운송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LNG 수요가 2030년까지 25~50%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석화업계, AI 활용해 디지털기술로 생산성 높인다

롯데케미칼 “AI 적용 효율성 극대화”
한화솔루션, 신소재 개발에 AI 활용
LG화학, 전 영역 디지털 변혁 추진

국내 석화업계에 AI(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화업계가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석화업계 CEO들은 신년사를 통해 AI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간 반도체, 통신업계 등 AI와 사업 연관성이 높은 업계에서는 관련 거론이 잦았으나 산업 특성상 접점이 적은 석화업계가 AI를 키워드로 제시한 건 올해가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훈기 롯데케미칼 사장은 지난 1월 시무식을 통해 “AI 트랜스포메이션 준비를 통한 시장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이끌어 내자”라며 사업 전 영역에 AI



LG화학 여수 CNT 1·2·3공장 전경. /LG화학

기술을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월 AI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AI를 활용해 기초소재사업과 첨단소재사업 부문 특성에 맞춘 데이터 기반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AI 조직 신설을 위해 지난 2023년 말 롯

테케미칼은 데이터 엔지니어와 IT 인프라 관리 경력사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한화솔루션은 다양한 신소재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초거대 AI를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학술데이터베이스에 있는 1억개 이상의 화학식을 수집해 초거대 AI를 학습시켰다. 초거대 AI가 화학물질 데이터를 통해 화학식을 이해하기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신소재 후보 물질의 화학적 특성을 빠른 속도로 예측해 상업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인재확보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개발 관련 인력을 채용해 수십명 규모의 DT실 조직도 구성했다.

LG화학은 제조 영역부터 법무·환율 등 영업 전방위에서 AI 기반의 디지털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LG화학은 실시간 제품 품질 예측을 위해 온도, 압력, 유량 등 공정 센서 정보를 활용해 품질 관리 및 공정 안정성 향상에 AI를 활용

하고 있다. 예컨대 AI 기술을 통해 기저기 등 위생용품에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SAP) 물성 예측값을 계산하고 제품 가공에 용이하도록 적정 함수율을 높이기도 했다. 또한 계약서를 자동 검토하고 수정하는 AI 계약검토 솔루션을 도입해 단일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30%까지 단축했다. 또한 회사는 LG그룹이 지난해 AI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개최한 ‘해커톤 대회’에 참가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 박람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석화업계는 AI를 활용한 석유화학 공정의 탄소 최적화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오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유럽 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품목에 석유화학이 추가되는 방안이 유력해지면서 탄소 감축 기술은 석유화학업계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글로벌비스가 운용 예정인 LNG 운반선과 동일한 규모의 선박.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협찬 ‘한시적 규제유예’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영세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강도를 낮춘다.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우선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한다.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에코프로, 불황 극복 ‘원가혁신 TF’ 구성

향후 2년 내 30% 절감 목표

에코프로가 이차전지 시장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원가절감과 조직문화 혁신에 착수한다.

에코프로는 오창 본사에서 진행된 2분기 조회식을 통해 원가는 절감하고 조직문화는 업그레이드하는 ‘Cost down, Change up’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세부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에코프로는 향후 2년 동안 코스트를 30% 절감한다는 목표 아래 지주사 및 가족사들이 참여하는 원가혁신 TF를 구성했다.

원가혁신 TF는 가공비, 원재료비, 투자비 및 생산성 3개 분과로 구성돼 주요 제품별 원가를 분석하고, 현재 수준을 평가해 향후 2년 내에 총원가 30%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원가절감으로 수익성을 개선한 임직원들에게 절감액의 상당

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방침 아래 세부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는 연초에 수립했던 가족사 대표이사 및 주요 임직원들의 KPI(핵심성과지표)를 대폭 수정해 원가절감 등 혁신 지표를 대폭 반영해 재수립하고 있다. 혁신지표 달성 여부가 연말 사장단 및 임원 인사의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에코프로가 대대적인 원가 절감에 착수한 건 전방산업 부진과 광물가격 하락으로 초래된 경영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가 절감 목표액을 주요 KPI로 설정

하고 이를 평가 및 성과급 지표로 활용키로 한 건 구조성이 아닌 실행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최고경영층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도전, 신뢰, 변화와 혁신의 에코프로 기업문화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혁신은 고객과 시장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고객 앞에 좀 더 겸손하고 고객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혁신의 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차현정 기자

/구남영 기자 koogija_tea@